

# 洪奭周의 四部分類法에 관한 研究\*

## A study of the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 of Hong Sok-chu

리 상 용 (Sang-Yong Lee)\*\*

### 목 차

1. 序 論	2.3.1 經部
2. 四部分類法の 分析	2.3.2 史部
2.1 類序	2.3.3 子部
2.2 分類體系	2.3.4 集部
2.3 部別 類目的 特性	3. 結 論

### 초 록

洪氏讀書錄은 韓國書誌史上 각 類目的 첫머리에 그 主題分野의 源流와 隆替 그리고 그 性格 등을 적은 序文 즉 類序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발견된 書誌 중에서 유일한 존재이다. 本論文은 그 類序의 概要와 淵泉의 四部分類法 體系를 먼저 살펴보고, 類序의 內容을 통해서 이들 四分法의 類目이 어떤 體系로 설정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本 연구에서 얻어진 그의 分類體系 構想의 特徵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分類體系의 構成이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본질적인 문제로 전개되어 나아갔다. 즉, 儒學 本然의 문제에서 벗어난 주제일수록 그 類目的 순차가 뒤로 밀려 나갔다. 본래 분류항목의 類目順次는 같은 階層내에서 그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잡아주는 것인데, 淵泉의 分類體系에서도 이 원리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分類體系의 구성에 있어서 民本主義 思想이 저변에 깔려 있다. 淵泉은 分類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백성존중의 사상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淵泉의 洪氏讀書錄에서 채용한 分類體系는 類目的 配列順序를 어떻게나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객관성 있는 이유와 論理를 따져서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1995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접수일자 : 96. 5. 6

## ABSTRACT

Hong-ssi Tokso-rok (洪氏讀書錄 or Hong's Annotated Bibliography of Korean and Chinese Books) is the only work on the history of Korean bibliographies that has the introductory notes to each class, that is description of the origin of subject fields, transition, and characteristics at the beginning of each class. This paper is aimed to examine the outline of the introductory description of class, to analyze the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四部分類法) devised by Hong Sok-chu, and to explain how the classes of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are set and ordered.

This paper shows several characteristics in the idea of Hong's classification system. These characteristics were discovered by analyzing the content of each introduction of classes. Th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

First, classes are organized and arranged from the substantial problem to nonsubstantial ones. In other words, the greater the distance of the class from the substantial problem of Confucianism, the farther the order of the class will be found from the substantial problem. The order of classes is set by how the class is closed to the substantial problem in the same hierarchy. This principle is strictly applied to the Hong's classification system.

Second, on the basis of democratic thought, he developed the classification system. In other words, when he set up the priority of classes, he put emphasis on the democratism as a guideline. The organization of classes belong to the categories of history(Sa-bu, 史部) and philosophy(Cha-bu, 子部) showed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Conclusively, this paper found that Hong did not randomly arrange the class order, but he set the class order with objective reasons and logic when he set the class order of arrangement.

## 1. 序 論

洪氏讀書錄은 麗韓 十大文章家 중의 한 사람인 淵泉 洪奭周(1774-1842)가 자신의 동생 吉周(沈滄, 1786 - 1841)와 洪氏 門中의 後學을 위해 편찬한 分類順 選定圖書 解題目錄이다.

韓國書誌研究史上 洪氏讀書錄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76년의 일이다. 李載喆(1976) 교수의 논문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研究에서 同讀書錄에서 취한 分類法의 개괄적인 내용과 특이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우리나라 역대 書目 가운데 아직까지 최초이자 유일하게 類序(類目的 序文)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논평한 것이다. 그 후 필자의 졸고(李尙籟, 1987)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와 目錄記入法에 대한 研究에서 同讀書錄의 分類體系와 目錄記入法을 중심으로 中國의 四庫全書簡明目錄과 비교해서 분석한 바 있다. 이밖에 千惠鳳 教授가 그의 韓國書誌學에서 이 洪氏讀書錄을 私藏目錄에 속하는 것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洪氏讀書錄을 ‘家藏’ 또는 ‘私藏目錄’이라고 보는 千교수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견해를 달리한다.

洪氏讀書錄의 序文에 同讀書錄의 編纂 動機와 目的이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 洪氏의 所藏圖書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언급이 전혀 없고 다만 仲弟 吉周의 독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일찌기 읽어서 감명을 받은 책과 또 읽고 싶었지만 미처 읽지 못한 책을 모아서 分類하고 解題하여 편찬한 것이라고만<sup>2)</sup>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淵泉이 읽거나 참고한 도서 그리고 仲弟 吉周가 장차 체계 있게 읽고 참고할 도서를 선정하는데 자기 家藏의 도서로 국한하였을 리 없다. 淵泉은 洪氏門中의 冊 소장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어떤 사람이 색다른 책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가서 빌려보고야 말았으며<sup>3)</sup>, 그가 22세(1795)때 任宦한 이래 洪氏讀書錄의 編纂을 완성한 37세(1810)때까지 15년간 弘文館을 중심으로 藝文館과 奎章閣에서 修撰, 副校理, 校理, 副應教, 應教, 副提學 등 諸 官職을 歷任하는 동안<sup>4)</sup>, 그 官署에 소장되어 있던 많은 典籍을 섭렵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필자는, 洪氏讀書錄이 淵泉이 후학들의 學問 내지 讀書의 가이드를 위해 私藏이나 官藏의 관점을 떠나 選定한 圖書의 分類順 解題目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洪氏讀書錄에는 類序(類目的 序文)가 수록되어 있다. 이 類序란 각 分類項目(類目)에 수록된 文獻과 관련하여 그 主題分野의 源流

1) 王性淳. 1921. 麗韓十家文鈔. 南通縣(中國) : 韓墨書局. 국역판 : 국역여한십가문초.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8.

2) 洪奭周. 洪氏讀書錄 自序.

吾弟憲仲 亦有志於學 於經史諸書 頗涉其岸略 爲文章滔滔不窮 … 吾懼其自足而止也 又懼其如余之汜濫而不得其要也 於是 取凡余之所嘗讀而有得 與夫所願讀而未及者 列其目 識其概

3) 憲宗實錄. 卷之29. 張4b(朝鮮王朝實錄48 : 491). 聞人有異書 必借讀乃已.

4) 洪奭周. 淵泉先生家狀(淵泉全書. 1984 影印本. 서울 : 許晟社. 卷5, pp. 599-620).

와 隆替 그리고 그 性格 등의 개요를 적은 것이다. 中國의 四庫全書總目提要에는 이 類序가 붙어있지만 韓國書誌史上 이 類序가 있는 書目은 洪氏讀書錄이 그 嚆矢이자 아직까지 唯一한 존재이다.

目録을 편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식으로 分類를 해야할 지 고민에 빠질것이다. 이 문제는 淵泉 또한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淵泉은 기존에 편찬된 여러 目録을 보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洪氏讀書錄을 편찬했을 것이다. 朝鮮時代에 편찬된 海東文獻總錄, 奎章總目(1781), 鏤板考(1796), 群書標記(1799) 등 재래목록이 모두 類序를 붙이지 않았는데 유독 洪氏讀書錄에 類序가 붙어 있는 것은 아마도 中國의 四庫全書總目提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이 類序의 內容을 통해서 淵泉 四部分類法의 分類 基準이 무엇이며, 各部 내에서 類目的 配列順次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四部分類法의 分析

### 2.1 洪氏讀書錄의 類序

類序란 각 分類項目(類目)에 수록된 文獻과 관련하여 그 主題分野의 源流와 隆替 그리고 그 性格 등의 개요를 적은 것으로 洪氏讀書錄의 類序는 韓國書誌史上 아직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唯一한 존재이다.

淵泉이 洪氏讀書錄을 편찬하기 이전에 그는

이미 四庫全書簡明目録(이하 簡明目録이라 칭함)과 그의 母本格인 四庫全書總目提要(이하 總目提要라 칭함)를 보았으며, 이들 目録은 淵泉이 洪氏讀書錄을 편찬하게 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sup>5)</sup>

洪氏讀書錄에는 類序가 원칙적으로 각 類目的 序頭に 있으며 經部와 子部에는 類序와 더불어 類目的 末尾에 後序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이 洪氏讀書錄의 類序의 配置體制는 簡明目録에서보다는 그의 母本格인 總目提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總目提要에서는 각 類目的 序頭に 類序가 붙어 있고, 類目에 따라 類目的 末尾에 後序格인 案語가 놓여 있는 반면, 簡明目録에는 類目的 序頭に 類序가 없고 대신 각 類目的 末尾에 後序格인 案語가 붙어 있고, 경우에 따라 案語가 없는 類目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洪氏讀書錄에 수록된 類序의 수록 상황을 經部, 史部, 子部, 集部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經部는 易門, 書門, 詩門, 禮門, 春秋門, 四書門, 孝經門, 小學門, 樂門, 總經門의 10門으

5) 洪奭周, 洪氏讀書錄. 史部. 志門. 藝文目. 四庫全書簡明目録의 解題

四庫全書簡明目録二十卷 清乾隆中修 蓋禮部尙書紀勻所定也 四庫者 經史子集 謂之簡明者 蓋別有總目故云 … 余嘗入燕都 與其士大夫 語及此書[四庫全書簡明目録] 問顧炎武 呂留良 魏禧集 何不在選 其人搖手不能對 蓋諱之也 嗚呼 上下數千年之載籍 以敦一代之鉅典 而乃欲以一時之忌諱 一人之好惡 參於其間 其亦難矣 總目凡二百卷 刪其書而存其目者 又居其半 舛繆闕漏 殆不可勝也.

로 구분되어 있는데 總經門을 제외한 모든 類目に 類序가 수록되어 있다. 總經門의 경우 總經이란 類目이 標目으로 나오지 않고, 經部 易門에서 樂門까지 배열한 후 제일 말미에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史部는 史門, 野史門, 裨史門, 志門의 4門으로 구분 되어 있다. 이 가운데 史門의 類序는 洪氏讀書錄 史部の 맨 첫머리에 기술하여 언뜻 보면 史門, 野史門, 裨史門, 志門을 대표하는 史部の 總序가 아닌가 하고 생각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編年目, 紀傳目, 別史目的 3目を 대표하는 第二分枝로서의 史門의 類序임을 알 수 있다.

子部는 儒家門, 農家門, 醫家門, 法家門, 老家門, 法家門, 雜家門, 數家門, 天文家門, 數術家門, 藝術家門, 說家門, 小說家門, 釋家門, 總子門의 15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總子門을 제외한 모든 類目に 類序가 수록되어 있다. 이 總子門은 經部の 總經과 마찬가지로 總子란 類目이 標目으로 나오지 않고, 子部 儒家門에서 釋家門까지 배열한 후 제일 말미에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集部는 集門 하나를 설정하고, 이를 總集目과 別集目的 2目으로 구분하고 있다. 集部の 類序도, 史部 史門의 類序와 마찬가지로, 洪氏讀書錄의 集部 바로 다음에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史部の 경우에는 編年目, 紀傳目, 別史目的 3目만을 대표하는 第二分枝로서의 史門의 類序로 보았지만, 集部の 경우에는 淵泉 자신이 集部の 著錄을 모두 기입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右集部 一門이란 말을 쓰고, 類目 또한 總集目과 別集目的 2개에 불과하므로 集部를

대표하는 集部の 總序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洪氏讀書錄 類序의 收錄狀況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類序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淵泉의 四部分類法 體系가 어떤 방식으로 展開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2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

淵泉은 일생 동안 2종의 目錄을 편찬했다. 그의 나이 37세(1810년) 때 동생 吉周와 洪氏門中の 後學을 위해 편찬한 分類順 解題目錄인 洪氏讀書錄과 50대 후반에 壯·老年層의 誦讀生活을 진작시키기 위해 편찬한 誦讀目錄인 四部誦惟目錄이 바로 그것이다. 이 2종의 目錄은 韓國書誌史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目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目錄으로 인하여 당대 최고의 文章家로만 알려졌던 淵泉이 徐浩修, 徐有 등과 더불어 조선후기 최고의 書誌學者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淵泉의 四部分類法은 洪氏讀書錄과 四部誦惟目錄에 적용된 分類體系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 四部誦惟目錄은 經部, 史部, 子部, 集부로 구분한 후, 각 部내에서 類目を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채 단지 書名을 기입한 다음 그의 핵심적인 篇章만을 열거하였으므로(李尙鏞, 1993) 四部分類法에서 사용되는 각 類目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없다. 또한 同 目錄은 洪氏讀書錄을 토대로 하여 편찬된 것이므로 淵泉의 四部分類法에 대한 고찰은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

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淵泉의 外孫 韓章錫은 자신이 편찬한 淵泉先生年譜에서 “洪氏讀書錄의 체계는 簡明目錄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말은 類序를 갖춘 점, 著錄의 解題를 갖춘 점, 그리고 同一 類目 내에서 著者의 先後學順으로 배열한 점 등 그 目錄의 編成體系를 본떴다는 말이지 그 分類體系를 그대로 본떴다는 말은 아니다. 洪氏讀書錄 分類體系의 類目構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sup>7)</sup>

經部	樂	法家
易	【總經】	雜家
書	史部	數家
詩	史	天文家
禮	編年之史	數術家
【儀禮】	紀傳之史	藝術家
【周禮】	別史	說家
【禮記】	野史	論說
【三禮總義】	禘史	記述
【通禮】	紀言之書	考證
【雜禮】	紀人之書	評藝
春秋	紀事之書	類書
四書	志	雜纂
【論語】	總志	小說家
【大學】	禮儀	釋家
【中庸】	典法	【總子】
【孟子】	職方	集部
【論孟】	藝文	總集
【四書總義】	子部	別集
孝經	儒家	
小學	農家	
【小學】	醫家	
【訓詁】	兵家	
【字書】	老家	
【韻書】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는 經部 10門 16目, 史部 4門 11目, 子部 15門 6目, 集部 1門 2目 등 전체 30門 35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기존의 四部分類法에서 각 分枝의 단위명으로 部, 類, 屬을 쓰는 반면, 同 讀書錄에서는 이들 단위명 대신 部, 門, 目を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門과 目的 分枝名에서는 그 단위명이 일정하지 않아 때때로 類와 屬으로 혼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예는 洪氏讀書錄 子部 說家門의 序文에 其類有六 一曰論說이란 표현에서 ‘類’의 칭호를 볼 수 있고 史部 史門의 序文에서 史之屬有三의 표현과 子部 說家門의 各 目的 말미에 已上皆論說之屬, 已上皆考證之屬, 已上皆評藝之屬이란 표현에서 ‘屬’이란 칭호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단위 접미어인 門과 目は 직접적으로 분류체계의 각 類目에서 접미어로 쓰이지 않고 단지 각 部의 말미에서 “右經部凡九門, 右史部凡四門實十二目” 등의 표현으로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淵泉이 洪氏讀書錄에서 채용한 四分法은 매우 관습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類序의 內容을 살펴보면, 각 部의 개념 설정 및 배열순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의 분류체계의 엄정성을 읽어낼 수 있다.

6) 韓章錫. 1911. 淵泉先生年譜. (淵泉集의 附錄 京城 : 韓光洙邸).

讀書錄 … 蓋倣於簡明目錄

7) 표상에 類目名이 괄관호로 묶인 것은 洪氏讀書錄에는 그 類目이 標目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의 著錄分類가 이처럼 세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道術을 밝히는 데는 '經'보다 먼저 할 것이 없고 得失을 증거하는 데는 '史'보다 뛰어난 것이 없으며, 聞識을 넓히는 데는 '子'보다 풍부한 것이 없고 文章을 구하는 데는 '集'보다 가까운 것이 없다. (明道術者 莫先乎經 徵得失者 莫著乎史 廣聞識者 莫富乎子 求文章者 莫近乎集)<sup>8)</sup>

특히 윗글에서 보듯이 淵泉은 經史子集 順의 배열을 그 중요도에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淵泉에게 있어서 이 배열의 순서는 곧바로 중요저작 순서이자 독서 순서인 것이다. 실제로 類序에서 이 순서로 책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으며<sup>9)</sup>, 그의 다른 저술에서도 이 순서를 著作의 重要度로 파악한 실례가 있다.<sup>10)</sup>

그렇다면 이런 순서가 가능한 근거는 무엇일까? 淵泉은 관례대로 四部로 구분했지만 經과 史를 하나로, 子와 集을 하나로 보고 이들이 모두 經에서 순차적으로 파생되었다고 파악한 듯하다.

옛적에 經과 史가 하나였다. 尙書와 春秋의 경우가 바로 그 例이다. 聖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經을 다시 이을 수가 없게 되었으나 事實을 기록하는 일은 없어질 수가 없었으니 經과 史가 여기서 分離되게 된 것이다. (古者 經與史爲一 尙書春秋 是也 聖人不作 經不能復續 而記事不可廢 經與史於是乎分)<sup>11)</sup>

子와 集은 모두 一家의 말이다. 立言으로

道를 밝힌 것이기에 子라 하고 文章을 모은 것이기에 集이라 하니, 集이란 輯과 같은 의미이다. (子與集 皆一家言也 由其立言以明道而謂之子 由其輯文章而謂之集 集者輯也)<sup>12)</sup>

淵泉은 經과 史가 하나였는데 후대에 들면서 經과 史가 분기되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子와 集도 하나였는데 子는 立言으로 道術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子란 명칭을 붙이고, 集은 文章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集이란 명칭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다. 經은 당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며, 史는 政治에 대한 기록이며, 子는 經, 史集部에 속하지 않는 모든 주제분야를 한 덩어리로 그룹화하여 각 주제마다 一家의 사상체계를 세워서 道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集은 一家의 견해를 담은 文章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經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 맨 앞에 자리를 잡았으며, 거기에서 파생한 순서에 입각하여 史, 子, 集의 順序를 잡은 것이다.

8) 洪奭周, 洪氏讀書錄 卷4. 集部 集門 序文.

9) 윗 책.

然必本之以經 輔之以史 參之以諸子 然後 集乃可讀也

10) 洪奭周, 鶴岡散筆 卷2(淵泉全書, 卷7, p.61a).

古之著書者 其高下 大率有五等 世之讀書者 亦然 太上 明道以正德 六經四書 群聖賢之言是也 其次 經世以致用 聖人之經 兼乎是者也 而歷代史乘禮樂 兵刑之典籍 亦與焉 其次 修辭以美觀 其次 稽物以洽聞 ... 又其下 則小說瑣記 游談以破閑而已 ... 古之著書者 率有五等 其高與下 固居可知矣.

11) 洪奭周, 洪氏讀書錄 史部 史門의 序文.

12) 윗 책. 集部 集門의 序文.

## 2.3 部別 類目的 特性

앞 장에서는 洪氏讀書錄 分類體系의 類目構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각 部내에서 類目的 順次가 어떤 식으로 정해졌으며, 類目を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에서 經部의 경우 그 類目 자체가 가장 原論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類目構成을 보아도 여타 目錄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으며, 集部의 경우는 總集과 別集의 두 개의 類目으로만 구분하여 별다른 특징적인 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淵泉의 獨創性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史部와 子部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洪氏讀書錄과 그 構成面에서 가장 유사한 中國의 總目提要의 類目配列順次와 비교해서 그 특징적인 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각 部別 特徵은 다음과 같다.

### 2.3.1 經部

經部는 易門, 書門, 詩門, 禮門, 春秋門, 四書門, 孝經門, 小學門, 樂門, 總經門의 10 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總目提要 經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물론 經部의 속성상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렵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양 목록에서 易, 書, 詩, 禮, 春秋까지는 그 순차가 동일한데 그 이후에는 순차상의 차이가 있다. 특히 洪氏讀書錄에서 總經을 經部의 맨 마지막에 둔 점이 특이하다.

淵泉은 經部의 제일 첫머리에 易門을 두고 그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周易은 書籍의 始初이며 義理의 根柢이다. 冊이 창시되면서 八卦가 이루어지고 周나라의 道가 흥해지면서 彖辭와 爻辭가 덧붙여졌다. … 사람이 四聖을 지내고 세상이 三古를 지내면서 天下의 書籍 중에 周易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理致는 지극히 오묘해서 형용할 수 없으며, 形象은 지극히 깊어서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形象에 말미암아서 數를 미루어 보는 것은 術數로 흘러버리고, 數를 뽑아서 이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니, 천하에 읽기 어려운 책이 周易 같은 것이 없다. (易者載籍之權輿 義理之根柢也 書契創而八卦 周道興而彖爻繫 … 人更四聖 世歷三古 天下之書 莫有尊於易者也 然理至奧而無形 象至顯而難晰 由相而推數者 流於術 釋數而談理者 落於空 天下之難讀者 亦莫易若也)<sup>13)</sup>

淵泉은 周易이 書籍의 始初이며 天下의 書籍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읽기 어려운 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五經 중에서도 易을 經部의 맨 우두머리에 놓은 것이다.

經部에는 五經을 모두 배열한 다음에 四書門을 수록하고 있다. 淵泉이 四書門의 序文에서

대저 五經은 先王의 大訓이며 四書는 聖賢의 格言이니 그 理致는 同一하다. 그러나 五經의 글은 奧妙하고 四書의 글은 暢達하

13) 淵泉, 經部 易門 序文.



니 ... 그러므로 五經의 뜻을 구하는 일은 반드시 四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夫五經先王之大訓 四書 聖賢之格言 其致一也 然五經之文奧 四書之辭暢 ... 是以 求五經之義者 必自四書始)<sup>14)</sup>

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서 五經과 四書의 중요성 때문에 經部에서 이들 類目を 앞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밖에 標目上으로 經部の 말미에 樂門을 설정하고 그의 類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날에 六經이 있었는데 樂經이 그 하나이다. 先王이 사람을 가르침에 13세 이상이면 絃歌와 춤을 먼저 배우게 하였다. ... 후대에 이르러 五經은 모두 일부 欠한 상태로나마 傳하고 있으나 樂經만은 완전히 亡失되고 말았다. 지금 전하는 것은 모두 선왕의 遺作의 것은 아니지만 諸經의 말미에 參列시킨 것은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古有六經 樂其一也 先王教人 自十三以上 皆以絃歌舞蹈爲先 ... 及後世 五經皆缺 而樂獨盡亡 今之所傳者 皆非先王之遺也 然猶列于諸經之後者 存其名而已)<sup>15)</sup>

樂經은 周易, 書經, 詩經, 禮記, 春秋와 더불어 六經에 속했지만 후대에 내려오면서 완전히 망실되어 그 명맥만을 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經部の 末尾에 자리매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各經이 담고 있는 내용의 중요도에 의거해서 그 순차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經部の 類目配列順次의 특징을 살

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앞에 두고 부차적인 순서로 계속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五經과 四書を 배열한 다음 孝經門, 小學門, 樂門, 總經門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孝經門과 小學門을 그렇게 배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2.3.2 史部

史部는 史門, 野史門, 裨史門, 志門의 4門으로 구분 되어 있다. 이 史部の 類目 構成은 總目提要의 유목 배열과 비교해 볼 때 淵泉의 獨創性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總目提要의 경우 15類 27屬인 반면 洪氏讀書錄은 4門 11目으로 구분한 것이다. 經部の 類目配列順次는 總目提要와 미세한 차이는 있었지만 類目の 명칭상 커다란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서 史部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史部の 類序에는 주로 유목을 설정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여타 目錄과 類目を 비교해 볼 때 그 名稱이 너무 색달라서 그에 대한 해명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史部の 類目 構造 또한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전개되어 나아감을 알 수 있다. 그 구성을 보면, 맨

14) 嶺 策. 經部 四書門 序文.

15) 嶺 策. 樂門 序文.

앞에 가장 순수역사적인 성격을 지닌 編年, 紀傳, 別史를 史門에 모으고, 그 다음 순수 역사에서 다소 벗어난 책들을 모아 野史門에 모으고, 史는 아니지만 史에 도움을 줄만한 책을 裨史門에 모으고, 이밖에 典章과 文物에 관한 著錄을 모아 志門을 구성한 것이다.

淵泉은 史門을 編年, 紀傳, 別史의 3目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編年目은 總目提要의 編年類, 紀傳目은 總目提要의 正史類, 別史目은 總目提要의 別史類와 같은 類目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洪氏讀書錄의 別史目에는 總目提要의 雜史類에 해당하는 國語, 戰國策, 貞觀政要 등의 저작과 史部 史評類에 수록된 唐鑑 같은 저작도 수록되어 있다.

分枝는 다르지만 그 類目配列順序에 있어서, 總目提要의 史部에서 正史類를 맨 앞에 놓은 것과는 달리 洪氏讀書錄에서는 編年目を 맨 처음에 놓고 그 다음에 紀傳(正史)目を 놓고 있다. 곧 編年史를 正史보다 우선해서 수록한 것이다. 淵泉이 編年目的 맨 첫머리에 荀悅이 지은 漢紀를 수록하고 그의 해제에서 “春秋 이후에 編年體 史書는 荀悅에서 시작한다”<sup>16)</sup> 고 말한 점으로 보아 孔子의 春秋가 編年體 史書라는 점을 감안해서 編年史를 正史보다 優先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淵泉은 史門 다음에 野史門을 수록하고 있다. 淵泉은 野史門의 類序에서 그 유목을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史를 專擔하는 官員이 있어서 그 官이 아니면 감히 史를 짓지 못했다. 그러나 太史公이 荊軻의 傳을 지을 때에 夏

無의 말을 증거하고 將軍 衛靑의 傳을 지을 때 蘇建의 말을 증거하니 진실로 일찌기 野聞에서 증거하지 않은 것이 없다. 後世에 史官은 一官이 아니며 官도 또한 한 사람이 아니어서 愛憎으로 서로 낮추고 올리어 진실로 사람에게 信望받지 못하고 그 책이 또한 비밀이 감추어져서 얻어 볼 수가 없었다. 이에 草野의 博聞하고 能言한 사람이 비로소 집에서 스스로 史를 지었다. 孔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禮가 없어짐에 그것을 野에서 求하였으니 내가 史의 경우도 또한 그렇게 野에서 求해야겠구나.” (古者 史有專官 非其官則不敢爲史 然 太史公 傳荊軻 徵夏無 且傳衛將軍靑 徵蘇建 固未嘗不徵野聞也 後世 史不一官 官不一人 以愛憎相低昂 固不信於人 而其書又祕 不得見 於是 草野之博聞能言者 始家自爲史 子曰 禮失而求諸野 吾於史亦云)<sup>17)</sup>

淵泉은 옛날에 史官이 역사를 편찬할 때 野聞을 참조했는데, 후대에 史官制度的 弊端으로 인하여 民間에서 역사를 편찬하게 되었으며, 孔子의 말을 빗대어서 자신이 野史門을 설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野史門에는 史門의 내용에 보충적인 성격을 띤 저작을 수록한 경우가 있으며, 인물을 중요시 여겨서 수록한 경우도 있으며, 특정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

16) 洪昉周. 洪氏讀書錄. 史部. 史門. 編年目. 漢紀의 解題.

春秋以後 編年之書 自悅始.

17) 윗 책. 野史門 序文.

이 담겨있어서 수록한 경우도 있다.

野史門 다음에는 裨史門이 수록되어 있다. 裨史門의 序文에는 裨史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다.

裨史란 史는 아니지만 正史를 補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구분하면, 첫번째는 紀言이요 두번째는 紀人이요 세번째는 紀事이다. 紀事란 春秋와 같은 것을 말하고 紀人이란 史記의 列傳과 같은 것을 말하며 紀言이란 書經의 謨, 訓, 誓, 誥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 세가지는 모두 史이면서 史가 아니다. 그러나 이 세가지가 있어 史에 보좌함이 있는 까닭으로 裨史라 한다. (裨史者 非史也 而可以有佐於史也 一曰紀言 二曰紀人 三曰紀事 紀事者 春秋也 紀人者 史記之列傳也 紀言者 尚書之謨訓誓誥也 是三者 皆史也 非史也 而有是三者 則亦可以有佐於史 故曰裨史)

즉, 淵泉은 裨史를 “史는 아니지만 史를 補佐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다시 紀言, 紀人, 紀事의 3目으로 구분하고 있다. 紀言目은 總目提要의 詔令奏議類 奏議之屬에 해당하고 紀人目은 總目提要의 傳記類 總錄之屬과 名人之屬에 해당하고 紀事目은 傳記類 雜錄之屬과 雜史類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紀事를 먼저 배열하지 않고 紀言과 紀人을 먼저 배열한 것이다. 이는 淵泉이 사건보다는 사람에 우선 순위를 두고 분류항목의 순서를 정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나름대로 民本主義的인 思考를

하고 있는 것이다.

史門의 제일 마지막에는 志門이 수록되어 있다. 이 志門 또한 總目提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類目이라고 할 수 있다. 淵泉은 志門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紀, 傳, 表, 志는 史의 大目이다. … 志는 典章을 昭詳히 적은 것이다. 典章과 文物은 人治의 큰 것이니 중요하지 않겠는가? (紀傳表志 史之大目也 … 志以昭典章 典章文物 人治之大者也 可無重乎)<sup>18)</sup>

淵泉이 위에서 말한 紀, 表, 志, 傳은 본래 紀傳體 史書의 주요 항목들이다. 그런데 그는 이 志를 한 門으로 독립시켜 總志, 禮儀, 典法, 職方, 藝文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總志는 總目提要의 政書類 通制之屬에 해당하고 禮儀는 政書類 儀制之屬에 해당하며, 職方目은 地理類에 해당하며, 藝文目은 目錄類에 해당한다.

淵泉이 史部의 제일 말미에 “이상의 史部는 대개 四類門이나 실제로는 12類目<sup>19)</sup>이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 그가 第2分枝인 門(類)을 4가지로 대별했지만 第3分枝인 目(屬)까지도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總目提要의 史部와 비교해 볼 때 淵泉의 것은 나름대로의 獨自性을 지닌 분류체계임을 알 수

18) 윗 책. 裨史門 序文.

19) 윗 책. 志門 序文.

20) 윗 책. 史部 後序.

右史部凡四門 實十二目.

있다.

### 2.3.3. 子部

子部는 儒家門, 農家門, 醫家門, 兵家門, 老  
家門, 法家門, 雜家門, 數家門, 天文家門, 數術  
家門, 藝術家門, 說家門, 小說家門, 釋家門, 總  
子門의 15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總目提  
要와 비교해 볼 때 전체 類目的 설정에 있어  
서는 대동소이하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는 확  
연히 다르다. 總目提要에서는 '儒家類, 兵家類,  
法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算法類, 術數類,  
藝術類, 譜錄類, 雜家類, 類書類, 小說家類, 釋  
家類, 道家類의 순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總目提要의 子部를 위한 類序에 그의 類目順  
序를 그렇게 잡은데 대해 다음과 같은 辯이  
있다.

儒家는 가장 숭상할 만한 것이다. 뜻을  
일삼는 사람은 武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그 다음에 兵家を 두었다. 兵은  
刑과 같은 부류이다. 唐나라 虞임금 시절  
에 臯陶가 없었다면, 寇賊과 姦를 禁할 수  
가 없어서 반드시 풍속이 태평스럽게 변하  
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法家를  
그 다음에 놓았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며, 곡식은 백성의 근본이다. 그런 연유로  
農家를 그 다음에 놓았다. 本草와 經方은  
技術과 관계된 일이지만 生死에 관련된 것  
이므로 神農과 黃帝가 聖人으로서 天子가  
되어서도 오히려 친히 이를 다스렸다. 그런  
까닭으로 醫家를 그 다음에 놓았다. ... 稗  
官이 기술한 바는 그 사건 또한 미미한 것

이지만 전문을 넓히는 것이 바둑이나 장기  
보다 나은 까닭으로 小說家를(類書類)의  
다음에 놓았다. ... 二氏는 정통 학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釋家와 道家  
를 제일 마지막에 놓았다. (儒家尙矣 有文  
事者有武備 故次之以兵家 兵刑類也 唐虞無  
臯陶 則寇賊姦宄無所禁 必不能風動時雍 故  
次以法家 民國之本也 穀民之本也 故次以農  
家 本草經方 技術之事也 而生死繫焉 神農  
黃帝 以聖人爲天子 尙親治之 故次以醫家  
... 稗官所述 其事末矣 用廣見聞 愈於博奕  
故次以小說家 ... 二氏外學也 故次以釋家道  
家終焉)<sup>21)</sup>

洪氏讀書錄 子部の 경우에도, 總目提要와  
그 배열 순서는 다르지만, 類目的 順序를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표현을 간간히 살펴볼 수 있  
는데 역시 그 근간은 總目提要를 통해서 얻어  
진 것으로 생각된다. 兩目錄 모두 儒家를 맨  
위에 두고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이하의  
순서는 아주 다르다.

우선, 洪氏讀書錄에서는 子部の 儒家門 다  
음에 農家門을 배열하고 있는데, 農家門을  
이렇게 앞 부분에 배열한 이유에 대해서 淵泉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날에 士와 農은 분리되지 않아 神農과  
后稷이 모두 聖人이며 伊尹과 諸葛亮은 모  
두 밭에서 몸소 밭을 간 匹夫이다. 세상이

21) 魏 책. 子部 儒家門 序文.

내려가면서 풍속이 음란하고 이미 사치스럽고 태만하여 士大夫의 집에서 차라리 장사하는 일을 일삼지, 농기구를 잡는 일을 하지 않아서 天下의 百姓에 비로소 양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農家を 儒家 다음에 놓은 것은 백성의 근본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古者 士農不分 神農后稷 皆聖人也 伊尹諸葛亮 皆畝畝躬耕之夫也 世降俗淫 既侈而怠 士大夫之家 寧事賈販之業 而不肯執耒耜 天下之民 始有不得其食者矣 次農于儒 重民本也)<sup>22)</sup>

이로 볼 때, 淵泉이 儒家門 다음에 農家門을 놓은 것은 百姓의 根本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며, 이는 百姓의 根本을 중시하는 民本主義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 淵泉의 이 같은 사상이 근간이 되어 儒家門 다음에 사람의 먹거리에 대한 農家門을 배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醫家門을 배열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醫는 疾病에서 백성을 구하는 所以이다. 醫와 農이 서로 나누어 행함은 마치 나라를 다스림에 文과 武가 있는 것과 같다. ... 그러므로 옛 성인에 神農, 黃帝, 岐伯, 伊尹이 모두 이 일에 중사하였다. 後世에 모두 이를 方技라고 배척하여 學士大夫가 이 일을 말하기 부끄러워하니, 이에 백성 중에 그 天壽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醫家を 農家뒤에 놓은 것은 백성의 생명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醫者 所以救民于疾病也 醫與農相頡而行 猶治國之有文武焉 ...

是以古之聖人神農黃帝岐伯伊尹 皆事焉 後世率擯之方技 學士大夫恥言焉 於是乎 民多不得其死者矣 次醫于農 重民命也)<sup>23)</sup>

윗 글에서 淵泉이 醫家を 農家 뒤에 놓은 것은 百姓의 生命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民本主義的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總目提要의 경우 法家を 子部の 3번째에 배열했는데, 洪氏讀書錄에서는 6번째에 배열해 그 순차가 뒤쪽으로 밀려 있음을 알 수 있다. 法家가 본래 儒家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法家を 儒家와 가까운 쪽에 배열하는 편이 논리적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淵泉은 法家門의 序文에서 “法이란 先王이 天下를 整齊하던 방법(法者 先王所以整齊天下也)”<sup>24)</sup>이라고 평가하지만 후대에 仁義를 폐하고 오로지 法에만 의존하여 商鞅과 韓非子 같은 사람은 災殃을 입었고 秦나라와 隋나라는 법으로 천하를 넘어뜨렸다(廢仁義而一斷於法者 商鞅韓非之所以殃其身 而秦隋之所以踏天下也)”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法家의 기본정신은 좋았지만 儒家의 기본 정신인 仁義가 배제되어 나쁜 결과를 초래하여 總目提要에서보다 法家を 뒷편에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즉 法家は 상부 다른 類目에 비해 儒家中心的인 淵泉의 생각에서 벗어나며, 民本主義的인 思考와도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22) 윗 책. 農家門 序文.

23) 윗 책. 醫家門 序文.

24) 윗 책. 子部. 法家門 序文.

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洪氏讀書錄에서는 總目提要에서 子部の 마지막에 배열한 道家를 명칭을 老家로 바꾸고 子部 類目の 中上部에 배열하고 있다. 儒家的인 입장에서 異端인 老家를 굳이 상부 5번째 類目에 설정한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淵泉은 老家門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世間에서 보통 老氏를 道家라고 함은 잘못된 것이다. 道란 사람이 멋멋이 행할 바인데 어찌 老子가 마땅히 사사로이 할 바냐. 老子의 道는 恬淡, 寡慾을 근본으로 삼고 慈儉을 보배로 삼아 卑弱으로 사람을 이기니 그 장점은 가히 속일 수가 없다. 그 放邪함에 미쳐서는 仁義를 저버리고 禮樂을 滅絶하여 그 君臣父子의 人倫을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 처음의 눈금만한 하찮은 차이가 마침내는 千里의 어긋남을 가져온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世恒以老氏爲道家 非也 道者 人之所常行 豈老氏之所宜私哉 老氏之道 以恬淡寡慾爲本 以慈儉爲寶 以卑弱爲勝人 其長不可誣也 及其放也 提棄仁義 滅絶禮樂 大亂其君臣父子之倫 故曰差之毫釐 謬以千里)<sup>25)</sup>

윗 글에서 淵泉이 道家란 명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은 아마도 總目提要를 위시한 韓國과 中國 歷代 書目的 類目名을 빗대서 언급한 말일 것이다. 그는 기존에 사용된 道家란 명칭이 적절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자신이 老家로 그 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儒家的 正統을 내세워 老家를 異端視하여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老家의 장점을 잘 살리려는 노

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淵泉은 그의 저작 鶴岡散筆에서도 老家의 長點部分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있으며, 44세때에는 訂老란 책을 저술하여 유가적인 입장에서 老家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淵泉은 老家를 佛家와 마찬가지로 道의 부분에 있어서는 異端으로 여겼다. 하지만 老家의 경우 長點을 잘 살리면 天下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sup>26)</sup> 때문에 배열상, 여타 목록과는 달리, 그 순차를 뒷쪽에서 中上部分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淵泉이 類目の 順次를 儒家中心의 價値觀에 입각해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洪氏讀書錄 子部에서의 類目 배열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마도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淵泉이 類目の 순차를 어떻게나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그 이유를 따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論理를 세워서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2.3.4 集部

集部는 總集과 別集의 2개의 類目으로 구분되어 있다. 集門의 序文에는 集部 자체의 분류상의 특징보다는 전체 經史子集의 讀書의 順序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總目提要에서 集部를 楚詞類, 別集類, 總集

25) 윗 책. 老家門 序文.

26) 윗 책. 子部 釋家門 序文.

老釋之於道 俱異端也 然爲老氏之說者 猶不敢絕君臣父子夫婦之倫 用其長 猶足以寧謐天下 漢文帝曹相國是也.

類, 詩文評類, 詞曲類의 5類로 구분한 반면 洪氏讀書錄은 總集과 別集의 두 개의 類目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總集目에는 總目提要의 楚詞類에 수록된 著錄이 포함되어 있다. 同讀書錄에 수록된 楚詞의 저록 수가 4종류 밖에 안되며, 楚詞도 결국 楚의 屈原 등과 漢의 曹 등이 지은 辭賦의 總集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였을 것이다.

別集目에서는 韓國本의 경우 朝鮮時代의 저작은 하나도 수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集部의 말미에 “麗末까지의 것만 수록하고 감히 本朝(朝鮮朝)의 것은 수록하지 못했으니, 대개 그 取舍選擇을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이라고”<sup>27)</sup> 변명하고 있다.

### 3. 結 論

洪氏讀書錄은 韓國書誌史上 각 類目(分類項目)의 첫머리에 그 主題分野의 源流와 隆替 그리고 그 性格 등을 적은 序文 즉 類序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발견된 書誌 중에서 유일한 존재이다. 本論文은 그 類序의 概要와 淵泉의 四部分類法 體系를 먼저 살펴보고, 類序의 內容을 통해서 이들 四分法의 類目이 어떤 體系로 설정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는 經部 10門 16目, 史部 4門 11目, 子部 15門 6目, 集部 1門 2目 등 전체 30門 35目으로 구성되었다. 통상 기존의 四部分類法에서 각 分枝의 단위명으로 部, 類, 屬을 쓰는데 대하여, 同讀書錄에서는 部

門, 目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門과 目的 分枝名에서는 그 단위명이 일정하지 않아 때때로 類와 屬으로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總目提要의 史部에서 正史類를 編年類보다 앞에 놓은 것과는 달리 洪氏讀書錄에서는 史門의 구분을 編年, 紀傳, 別史의 순으로 배열하여 編年目을 紀傳目(즉 正史)보다 앞세워 맨 처음에 놓고 있는 점과, 裨史門이란 類目이 설정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本 研究에서 얻어진 그의 分類體系 構想의 特徵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分類의 體系가, 원칙적으로 儒家의 입장에 바탕하여, 正統적이거나 本質적인 것에서부터 非正統적이거나 枝葉적인 것으로 전개되어 나아갔다. 즉, 儒學 本然의 문제에서 벗어난 주제일수록 그 類目的 순차가 뒤로 밀려 나아갔다. 본래 분류항목의 類目順次는 같은 階層내에서 그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것인데, 淵泉의 分類體系에서도 이 원리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經部에서 儒家의 기본 經典인 五經과 四書를 먼저 배열하고 經部の 뒷 부분에 樂을 배열하고 있으며, 史部에서도 순수 역사서를 史門에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野史門, 裨史門, 志門의 순으로 배열해서 歷史의 本質적인 性格을 띤 것들을 우선하여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원리의 적용은 子部에서 儒家

27) 右 集部 集門 後序.

右集部一門迄于麗季 不敢及本朝者 盖慎乎其去取云爾

門을 중심으로 하여 맨 먼저 배열하고 釋家門을 마지막 부분에 놓은 것을 보아도 엄격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分類體系의 구성에 있어서 民本主義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다. 淵泉은 分類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백성존중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史部와 子部の 類目構成에 잘 나타나 있다. 淵泉은 史部 神史門에서 紀事를 먼저 배열하지 않고 紀言과 紀人을 먼저 배열하였으며, 子部 農家門을 儒家門의 바로 다음에 놓고 그 이유를 “農家を 儒家 다음에 놓은 것은 백성의 근본을 중히 여기기 때문(次農于儒 重民本也)”이라고 農家門의 類序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醫家門을 農家門 바로 다음에 놓고 그 이유를 “醫家を 農家 다음에 놓은 것은 백성의 생명을 중히 여기기 때문(次醫于農 重民命也)”이라고 醫家門의 類序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淵泉은 洪氏讀書錄 類目の 配列順序를 정할때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고, 이유를 따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論理를 세워서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1. 古典

- 大邱徐氏世譜. 1818(純祖18). 徐邁修 編  
徐有渠. 1796. 鏤板考. 洪命熹校訂本. 1968 影  
印本. 서울 : 寶蓮閣.  
徐浩修. 1781. 奎章總目. 內閣.

韓章錫. 1911. 淵泉先生年譜(淵泉集의 附錄  
京城 : 韓光洙邸).

憲宗實錄. (朝鮮王朝實錄, 1971 影印縮刷版.  
卷 48. 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洪吉周. 執遂念. 16卷 5冊. 延世大學校 中央圖  
書館所藏本

洪吉周. 題洪氏讀書錄後(峴首甲藁 卷3).

洪吉周. 標鑿乙機, 16卷 7冊, 延世大學校 中央  
圖書館所藏本

洪奭周. 淵泉先生文集. 寫本. 서울大學校 奎章  
閣本. 44卷 20冊.

洪奭周. 淵泉先生文集. 寫本. 서울大學校 中央  
圖書館 古圖書本. 40卷 20冊 中 殘18  
冊.

洪奭周. 淵泉先生文集. 寫本. 延世大學校 中央  
圖書館所藏本. 40卷 20冊.

洪奭周. 淵泉集. 1911 鉛活字本. 京城 : 韓光洙  
邸.

洪奭周. 淵泉全書. 1984 影印本. 서울 : 昨晨  
社. 7冊.

洪奭周. 洪氏讀書錄.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想白文庫本

洪奭周. 洪氏讀書錄 (淵泉先生文集. 卷40). 서  
울大學校 中央圖書館 古圖書本

洪奭周. 洪氏讀書錄 (淵泉先生文集. 卷40). 延  
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 2. 現代論著

- 金尙基. 1978. 淵泉家學과 韓氏文庫. 서울. 延  
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王性淳. 1921. 麗韓十家文鈔. 南通縣(中國) :



- 韓墨書局. 국역판 : 국역여한십가문  
초,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8.
- 李尙鏞. 1987.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와 目錄  
記入法에 대한 研究, 서울. 연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尙鏞. 1993. “四部誦惟目錄에 대한 연구”. 한  
국문헌정보학회지 25 : 445-476.
- 李載喆. 1976.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省谷論叢 7 : 580-598.
- 豐洪寶鑑. 1980. 豊山洪氏大宗會 編 서울 : 探  
求堂.